

워필드의 “The Higher life” 성화 교리에 대한 비판

조윤희
(그리십교회)

[초록]

B.B. 워필드(Benjamin Breckinridge Warfield)는 청교도의 후손이었다. 그는 개혁주의 신앙을 유산으로 삼는 가정에서 자랐으며, 이러한 성장과정은 그의 신학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워필드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초자연주의를 추구하는 신학자였다. 따라서 펠라기우스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나타내고 있는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신학 위에 세워진 “The Higher life”의 성화 교리는 워필드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워필드는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인 완전교리’를 말하고 있는 “The Higher life”의 성화 교리를 이방인의 사상을 구하는 교리라고 단정한다.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와 함께 ‘오벌린 완전주의’를 이끌었던 아사 마한(Asa Mahan) 그리고 스미스 부부(Mr. and Mrs. Pearsall Smith)와 윌리엄 보드만(William Edwin Boardman)이 주장하는 “The Higher life” 성화 교리는 사람의 의지가 주관이 되었으며,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피동적인 모습으로 비취졌다.

워필드의 지적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The Higher life movement’와 ‘승리한 삶의 운동(The Victorious Life Movement)’ 그리고 ‘케직 운동(Keswick Movement)’은 그 교리가 완전주의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뿌리가 웨슬리에게로 하나를 이루게 된다. 완전주의 교리는 성화를 현재에 달성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그것이 사람의 의지의 결정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워필드는 이러한 완전주의가 기독교를 위태로운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워필드는 칭의와 성화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인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나 “The Higher life”의 성화 교리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갈 성취를 말하고 있다. 워필드의 분석에 따르면, “The Higher life”의 교리는 칭의와 성화를 연결되어진 것으로부터의 구별이 아니라 다른 성질에 따른 구별로 보고 있다. 심지어 “The Higher life”의 교리는 ‘아담의 죄’와 ‘의의 전가’를 거부하며, 각 개별자의 신앙에 의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워필드는 “The Higher life”의 성화 교리가 어떻게 해서 개혁주의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지 예리하게 분석해나간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책이 워필드의 Perfectionism이다. 워필드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성화론이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서 있다는 것을 “The Higher life” 성화 교리의 분석을 통해 밝힌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개혁주의 교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우리는 이 글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완전주의라는 용어로 요약된 “The Higher life” 성화 교리는 대중적인 선동의 효과는 누렸지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워필드는 가르쳐주고 있다.

키워드: 워필드, 완전, 성화, 의지, 오벌린, 고귀한 삶

I. 들어가면서

청교도 후손이었던 벤자민 브렌킨리지 워필드(Benjamin Breckinridge Warfield, 1851-1921)는 아버지 윌리엄 벤자민이 목축업을 크게 일으킨 가정에서 개혁주의 전통을 배우며 성장한다. 그러나 그가 성장해왔던 19세기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강하게 불어 닥치던 시대였다. 여기에 대해 워필드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의 무오성에 도전하는 시대를 향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에 사력을 다한다.¹ 그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초자연주의’²를 말하며, 웨슬리안의 요소를 담고 있는 ‘Higher Life 성화론’의 모순을 지적함과 동시에 성화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게 된다. A.A. 핫지(A.A. Hodge, 1823-1886)의 뒤를 이어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가 된 워필드는 철저한 칼빈주의자로서 성경의 무오성과 함께 원죄에 대한 교리 그리고 예정론과 제한적 속죄에 대해 칼빈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성화론에 대한 자신의 신학을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Perfectionism*에서 완전주의자를 향한 비판의 글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화론을 표명하게 된다.

- 1 벤자민 B. 워필드, 『칼뱅』, 이경직, 김상엽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13; Jeffrey A. Stivason, *From Inscrutability to Concurus: Benjamin B. Warfield's Theological Construction of Revelation Mode from 1880 to 1915* (USA: P&R Publishing Company, 2017), 97-99; Warfield는 19세기의 자유주의에 뿌리를 둔 급진적인 사상들이 교회 내에 서서히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
- 2 Fred G.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Illinois: Crossway, 2010), 56-59에 나오는 “Christian Supernaturalism”을 참조하라: 워필드는 자연주의적인 발상을 앞세운 ‘유신진화론’ 그리고 ‘합리주의자들’의 발상에 대해 ‘초자연주의’를 역설하게 되며, 이것이 기독교의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그는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설명한다. 하나님은 자연 위에 계시는 분이시며, 자연은 자기 창조적이거나, 자존적이거나, 진화 또는 수정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창조되었으며, 초월적인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켈러 제임스 클락의 3인, 『신학 공부를 위해 필요한 101가지 철학 개념』, 김지호 역 (서울: 도서출판 100, 2017), 154-55: ‘자연주의’는 우주가 전적으로 자연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닫힌 체계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의 한 형태이다.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는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는 철학자 데이비드 흄, 신학자 D. F. 스트라우스, 신화학자 루돌프 볼트만과 같은 여러 다양한 인물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워필드는 ‘Higher Life movement’를 이끌었던, ‘완전주의’라는 용어로 요약된 이 사상의 원형이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의 가르침을 통해, 개혁주의 교회에 처음 주어지게 되었음을 밝힌다.³ 그리고 완전교리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 사상은 펠라기우스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Perfectionism*을 통해 강력하게 피력한다. 워필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특별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히면서 여기에는 죄사함과 은혜가 구속(redemption, 救贖)함 가운데 함께 결부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구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함께 밝힌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인간의 의지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 가능하다⁴는 견해를 통해 ‘Higher Life 성화론’이 주장하고 있는 인간의 의지적 결정에 의한 완전한 성화의 모순을 지적해나간다.

3 Benjamin Breckinridge Warfield, *Perfectionism*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8), 216: “The circle of ideas summed up in the general term “Perfectionism,” was first given standing in the Protestant churches through the teaching of John Wesley.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in which these ideas were formulated by him, very naturally therefore took from the beginning and has continued always to hold among the Wesleyans “the place of an acknowledged doctrine.”; 벵크 헤그룬트, 『신학사, 박회적 역 (서울: 성광문화사, 2014), 479-80: “웨슬리는 믿음과 행위에 관한 교리를 발전시켰으며, ... 그는 행위가 칭의에 대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 ...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방식대로 보편적 은혜를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의한 유기(reprobation)의 사상을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제럴드 크랙, 알렉 비들러, 『근현대교회사』, 송인설 역 (경기도: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143;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훨씬 더 많은 여지를 둔다. 웨슬리는 확고한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였다.”; 베르나르 코트레, 『루터, 칼뱅, 웨슬리』, 박건택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4), 416: 베르나르 코트레는 웨슬리의 전기를 기록하면서 에드워즈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였음을 밝히고 있다.

4 Benjamin B. Warfield, *The Plan of Salvation*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915), 25-26.

II. 역사적 맥락

1. 벤자민 브렌킨리지 워필드(Benjamin Breckinridge Warfield)

1851년 켄터키 주 렉싱턴 외곽에서 태어난 워필드는 두 가지에 있어서 분명한 가문의 후손이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박해로부터 미국으로 건너온 영국 청교도의 후손으로서 그의 집안은 ‘살아 있는 경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분명한 신앙의 터를 가지고 있었으며, 두 번째는 엄청난 유산을 가진 부유한 가문이었다. 1868년, 17세가 채 되지 못한 나이에 그는 뉴저지 대학(지금의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그리고 1872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서 학업을 한다. 그는 렉싱턴에서 「파머스 홈 저널」의 편집자로 잠시 일하였으며, 1873년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하여 그의 개인적인 멘토가 되었던 찰스 핫지(Charles Hodge, 1797-1878)의 아들인 캐스퍼 하지(Caspar Wistar Hodge, 1830-1891)를 만나게 된다.⁵ 1876년 졸업한 후, 그해 8월 애니 킨케드와 결혼하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프레드 제스펠(Fred G. Zaspel)에 따르면, 1880년 피츠버그 신학교 교수로 취임한 워필드는 1886년, 미국에서 신약 성경 본문 비평에 대한 교과서(textbook)를 최초로 출간한 학자가 된다. 그리고 A.A. 하지의 뒤를 이어 1887년, 신약학에서 조직신학으로 전과하여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을 가르친다.⁶

워필드는 ‘초자연적인’ 용어의 사용을 통하여 펠라기우스와는 달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더욱 강조한다. 그는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초자연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해 철저히 초자연적인 것을 강조하며, 가르친다. 그는 초자연적인 것을

5 Fred G.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27-29; Fred G. Zaspel, *Warfield on the Christian Life: Living in Light of the Gospel* (Illinois: Crossway, 2012), 27-28.

6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30-32; Zaspel, *Warfield on the Christian Life: Living in Light of the Gospel*, 29.

다른 수단에 의하지 않고,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었다. 워필드는 ‘반(反)초자연적’ 분위기에서 자기 구원의 체계를 가르쳤던 펠라기우스주의를 거부하였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⁷ 워필드는 자력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끌림 받는다는 것에 대해 분명하였다. 그는 영감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었던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자였다.⁸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누구보다 기독교에 대해 바르게 말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복음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2. 시대적 상황

19세기 초반 미국의 장로교회는 정통 개혁신학을 이어갈 목회자 양성을 위해 교단 신학교인 뉴저지 대학을 세운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목회자 양성에 집중하기보다 대학과정을 확대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교수들 가운데는 신학의 정통성에 의심이 가는 이들도 있었다. 따라서 장로교회의 애수벨 그린, 사무엘 밀러, 아키발드 알렉산더가 중심이 되어 정통신학을 정진시키기 위해 1812년 프린스턴에 미국 장로교회 신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아키발드 알렉산더, 사무엘 밀러 그리고 찰스 하지가 초대 교수로 봉직하며, 개혁신학의 본연의 교리를 지켜나간다. 그러나 시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프린스턴 신학교 또한 새로운 물결의 도전을 받는다.⁹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인간 이성의 결정권과 다윈의 『종의 기원』은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흔든다. 이런 가운데 19세기에는 성경 연구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비평들을 통해 진보하게 된다.

7 Zaspel, *Warfield on the Christian Life: Living in Light of the Gospel*, 19-21.

8 Stivason, *From Inscrutability to Concursus: Benjamin B. Warfield's Theological Construction of Revelation Mode from 1880 to 1915*, 5-16, 17; Zaspel, *Warfield on the Christian Life: Living in Light of the Gospel*, 25.

9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0.

신학의 근거를 경험과 감정에 두며, 신 의식에 대한 느낌과 의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의존감을 바탕으로 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의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에 의해 태동한다. 그 뒤를 이어 쉐라이어마허와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에 영향을 받아 신학에서 형이상학적 요소를 제거하고, 기독교를 경험적인 문제에 국한시키며,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리츨(Albrecht Ritschl, 1822-1889)이 워필드가 활동하던 시대에 개신교 자유주의의 물결을 일으키게 된다. 전통 교리를 역사적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불필요한 부가물 정도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초자연적 요소들을 강력하게 비평한다.¹⁰

19세기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에서 윌리엄 로버트슨 스미스(William Robertson Smith, 1846-1894)에 의해 시작되어진 ‘신 신학(New Divinity)’은 리처드 니버의 묘사에 따르면, 4가지의 ‘without’를 주장하게 된다. ‘진노 없는’, ‘죄 없는’, ‘십자가 없는’, ‘심판 없는’ 4가지의 주장을 통해 천국의 인도를 주장하며, 워필드가 주장하는 초자연적인 것을 물어버린다.¹¹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자유주의는 현대신학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19세기의 신학은 성경의 권위를 거부하며, 종교적 권위의 재배치를 꾀하게 된다. 자유주의로 인하여 장로교회의 대의가 상실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 워필드는 그 수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경고한다.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었던 초자연주의는 워필드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펠라기우스주의를 비롯하여 소시누스주의 그리고 이신론과 아르미니우스주의, 리츨 등의 신학을 비평하는 수단이 된다.¹² 그리고 펠라기우스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완전주의의 Higher Life 성화론에 대한 반격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10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6.

11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7.

12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59.

III.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Higher life 성화론

1. 완전주의와 Higher life 성화론의 태동

워필드는 완전주의 교리의 태동을 존 웨슬리에게서 찾는다. 그리고 이런 웨슬리를 그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초자연주의를 절대적으로 추구하고 있던 워필드가 볼 때, 완전주의는 그 뿌리를 근본적으로 신비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¹³ 펠라기우스(Pelagius, 360-420)는 인간의 의지가 절대적 능력을 가지는 핵심 원리였으며, '자력구원'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¹⁴ 웨슬리는 '완전'이라는 자신의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우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에 따르면 '완전'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도달하기 불가능한 것이었다. 반면, 중세 수도원의 주류를 이루었던 프란시스파는 완전을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이런 가운데 신비주의적인 '프랜드회'와 '형제회'를 중심으로 개인적 성결을 추구하는 '경건주의'가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모라비안파 신도들로부터 성결에 대해 영향을 받은 웨슬리는 완전주의를 표방하며, 이 운동이 18세기를 거쳐 19세기 유럽의 성화운동을 일으키게 된다.¹⁵ 1725년,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 1613-1667)의 『거룩한 삶과 죽음의 규범과 실천』 그리고 1725년, 토마스 아 켐퍼스(Thomas

13 Warfield, *Perfectionism*, 216;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57: "Warfield credits-or rather, blames-John Wesley as the leading source of perfectionist doctrine in modern Protestantism, but he traces perfectionist tendencies to two more fundamental historic sources: mysticism and Pelagianism. ... Wesley's perfectionism, for example, bears similarities to the mysticism of the Quakers, but it is from an essentially Pelagian libertarianism that his doctrine grows."; 카터 린드버그 편집, 『경건주의 신학과 신학자들』, 이은재 역 (서울: 사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515; 웨슬리의 완전교리는 웨슬리의 모든 교리를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었으며, 그는 완전성의 실체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 많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특별히 더 지적되었다.

14 Warfield, *The Plan of Salvation*, 37-38.

15 레오 조지 카스, 『존 웨슬리의 완전론』, 김덕순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89), 16-17.

a Kempis, 1380-1471)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웨슬리의 내면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며, 1738년 5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한 의인과 성화를 말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웨슬리의 영향은 영국의 국교회를 비롯하여 메도디스트파와 20세기 아메리카의 초교파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끼친다.¹⁶

18세기 다각적인 변화에 따른 기독교의 성화교리는 완전성화에 의해 어둠 속에 남겨지게 된다.¹⁷ 헨리 보드만(Henry A. Boardman, 1808-1880)에 따르면 완전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고취시키고자하는 완전성화의 개념을 루터에게서 찾으려고 한다.¹⁸ 이러한 경향은 윌리엄 보드만(William Edwin Boardman, 1810-1886)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보드만은 구원론에 있어서 자신들은 루터의 견해와 동일하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성화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대해 알 것을 권면하며, 종교개혁자들은 성화에 대한 완전을 거부하였지만 루터는 그러한 이들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¹⁹ 교리는 추측이 아니라 입증되어야 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16 각스, 『존 웨슬리의 완전론』, 20-23; 카터 린드버그 편집, 『경건주의 신학과 신학자들』, 514: “웨슬리에게 가장 명백한 영향을 끼친 자는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와 윌리엄 로(William Law)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리비안 교도들이었을 것이다.”

17 Henry A. Boardman, *The "HIGHER LIFE" Doctrine of Sanctification*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77), 24-25: “Stripped of superfluous verbiage, we are gravely asked to believe that the Christian Church has for eighteen centuries been left in the dark as to the great central doctrine of Sanctification: that the learned and pious divines at whose feet, next to those of Christ and his apostles, disciples have been most willing to sit; intrepid Missionaries who have carried the banner of the cross into the benighted regions of paganism; and thousands of martyrs who have sealed their testimony with their blood, have died without any full apprehension of the true way of Sanctification.”

18 H. A. Boardman, *The "HIGHER LIFE" Doctrine of Sanctification*, 27; Henry A. Boardman과 William Edwin Boardman의 구분을 위해 Henry A. Boardman은 각주와 본문에서 H. A. Boardman으로, William Edwin Boardman은 Boardman으로 표기할 것이다.

성화교리의 정당성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근거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존 모건과 헨리 코울즈의 도움을 받은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 1792-1875)와 아사 마한(Asa Mahan, 1799-1889)에 의해 1836년, ‘오벌린 완전주의’가 탄생하게 된다. 1839년에 발간된 오벌린 교리의 대표적인 성명서는 마한의 ‘그리스도인 완전’이었다. 그리고 1840년에는 피니의 ‘성화의 견해’라는 제목의 책이 「오벌린 전도자」라는 저널에 게재된다. 오벌린 교수들은 오벌린에 완전주의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극단적인 성향을 낳았던 ‘신 신학(New Divinity)’을 가져 오게 되며, 뉴욕의 중부와 서부에서는 이러한 ‘신 신학’을 바탕으로 한, ‘완전주의’가 태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은 새로운 학파와 급진적인 기질을 가진 피니와 마한에 의해 지배당한다.²⁰

완전주의의 사상의 원형은 웨슬리의 가르침을 통해 개혁주의 교회에 주어지게 되며, 이 교리는 미국 내에서 유력한 영향력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 운동은 피어설 스미스 부부(Mr. and Mrs. Pearsall Smith)에 의해 절정에 이르게 되며, 영어 권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 케직 운동(Keswick Movement)을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그리고 스미스 부부와 보드만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화의 교리에 대한 진실된 의미를 알린다며 ‘Higher Life movement’을 펼쳐나간다.²¹ 보드만에 의해 1859년에 출판되어진 *The Higher Christian Life*는 Higher Life movement의 지도자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심지어 이 책은 1874년 영국의 한 출판사에

19 William Edwin. Boardman, *The Higher Christian Life* (Massachusetts: Henry Hoyt, 1858), 32-38.

20 Warfield, *Perfectionism*, 8-9.

21 Warfield, *Perfectionism*, 216-19: “The movement thus begun reached its culmination in the labors of Mr. and Mrs. Pearsall Smith, out of which grew in the early years of the fourth quarter of the century the great Keswick Movement by which their formative ideas have been spread throughout the English-speaking world and continue still to be vigorously propagated. It is to W. E. Boardman and Mr. and Mrs. Smith accordingly that we must go if we wish to know what the Higher Life movement really is, and what it really means for Christian life and doctrine.”

의해 6만부가 판매되기도 한다.²² 보드만은 자신의 *The Higher Christian Life*를 통하여 ‘완전’과 ‘성화’에 관해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마치 배를 난파선처럼 만들어버린 사람들과 비교 비탄하고 있다. 그러면서 완전 성화에 관한 견해가 진리라는 것을 고수한다.²³ 이런 가운데 Higher Life 성화론은 완전주의자들의 핵심적인 성화 교리가 된다.

2. 완전주의와 Higher life 성화론의 교리적 바탕

(1) Higher life 성화론의 성질에 대한 워필드의 반박

워필드에 따르면 Higher life 성화론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완전주의의 가르침은 여러 계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리츨에 의한 자유주의적 또는 합리주의적인 완전주의 그리고 찰스 피니와 아사 마한으로 대표되는 오벌린 완전주의 그리고 테오도르 젤링하우스의 ‘독일 성결운동’과 영국과 미국에서 강력하게 일어났던 ‘Higher Life movement’, ‘승리한 삶의 운동’과 ‘케직 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었으며, 이 운동들이 내적으로 완전히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몇몇 대표들이 이 모든 운동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²⁴ 완전주의 신학은 19세기를 거쳐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²² Warfield, *Perfectionism*, 225-26.

²³ Boardman, *The Higher Christian Life*, 16-18.

²⁴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57: “Not all of these movements are organically related, but some influences among them are common. For example, Methodist lay teacher Phoebe Palmer(1807-1874) simplified and popularized the perfectionism of John Wesley and taught it to many others, such as Thomas Upham. Robert Pearsall Smith preached his holiness message in England, France, Germany, and Switzerland. The Oxford campaign was particularly successful, but his reception in Germany and Switzerland was even more enthusiastic. Of this campaign Smith said, “All Germany seemed to be aroused,” and “all Europe is at my feet” (W, 7:321), and in the wake of these efforts others continued to reap the perfectionist harvest in Britain and Germany. It was at Oxford that Jellinghaus found the teachings and took them to Germany.”;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57. 각주 110을 재인용하였다.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Higher Life movement’를 비롯한 ‘승리한 삶의 운동’과 ‘케직 운동’ 등은 그 교리가 완전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피할 수 없는 사실에 봉착하게 된다. 워필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고귀한 삶(Higher Life)의 교리가 설교될 때마다 완전주의의 씨앗이 뿌려지고, 고귀한 삶의 교리에 대한 굴레가 느슨해질 때마다 완전주의를 수확한다”라고 말한바 있다.²⁵

워필드에 의하면, Higher Life를 교리적 바탕으로 하여 완전주의를 추구 하던 보드만의 경험에 따른 구분은 죄인으로 하여금 두 가지의 필요를 느끼게 하며, 그리스도에게서 이중적인 준비를 찾아내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진실하고, 구원하는 믿음의 요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진정한 신앙은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보드만에 따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성화를 확신시키는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실현되는 힘(능력)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그 힘은 그리스도에 의해 작동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성화되어지는 거룩함의 작동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²⁶ 이것은 기독교를 ‘두 단계로 경험한다’는 가르침을 주었던 웨슬리 완전주의의 ‘제2의 축복’이나 ‘은혜의 둘째 역사’ 교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그의 『기독교 강요』 3.1.3.을 통해, ‘그의 육신과 살과 그의 뼈, 그리고 그와 하나가 된 거룩한 혼인’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합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²⁷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의는 은혜에서 오는 것이며, 이것은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25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73-74.

26 Warfield, *Perfectionism*, 237-38; 여기에서 결정적 요소는 그리스도의 힘(능력)이 아니라 사람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정이었다. 그러므로 워필드는 Higher life 성화론을 펠라기안의 요소를 담아내고 있다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2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I.1.3, ed. John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541; 이하는 Calvin, *Inst*로 표기를 함; Mark A. Garcia, *Life in Christ* (USA: Nottingham AlphaGraphics, 2008), 89.

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²⁸

거룩함은 전적으로 주님에게 속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며,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²⁹ 성화는 두 가지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 거룩함이 우리의 어떤 성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되어진다는 사실이다.³⁰ 이러한 성화를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으며, 성화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는 것을 가리켜, 술라이어마허의 견해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바빙크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격 전체에서 나오는 신비한 사역을 통해 우리를 자신과 교제하게 하며, 자신의 구원 사역을 통해 우리를 자신의 거룩에 동참시키고 있다.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사역을 통해 우리를 자신의 복된 자리에 동참시킨다.³¹ 개혁주의 전통에 세워진 워필드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그 사람의 노력으로 결부시키고 있는 Higher life 성화론에 대한 마한의 가르침을 경계하도록 한다. 심지어 워필드는 이러한 마한의 가르침을 불신앙의 요소를 길러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³²

워필드 이후, 후크마(Anthony A. Hoekema, 1913-1988)의 견해에 따르면, 성화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이해되어진다.³³ 워필드는 우리가

28 Calvin, *Inst.* III.14.5; David P. Smith, *B. B. Warfield's Scientifically Constructive Theological Scholarship* (USA: Pickwick Publications, 2011), 288.

29 Sinclair B. Ferguson, *Devoted to God: Blueprints for Sanctification* (USA: The Banner of Truth Trust, 2016), 197.

30 싱클레어 퍼거슨외 4인, 『성화란 무엇인가』, 이미션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77.

31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1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473;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III, 353-54, 455, 523-24: 바빙크는 성화과정 속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재창조에 따른 중보자의 사역으로 보고 있다.

32 Warfield, *Perfectionism*, 105.

33 Anthony A. Hoekema, *Saved by Grace*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194.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할 이유에 대해 이것을 크게 두 가지 방향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구원’이며, 또 다른 하나는 ‘거룩’이라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결과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따라 죽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난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의 경험에 참여하는 성화를 함께 이루어내는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드러진 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워필드는 설명하고 있다.³⁴ 그러나 Higher life 성화론의 가르침은 인간의 죄의 본성은 남겨둔 채, 의식적인 죄만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성화론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는 사실상 상관없는 성화를 말하는 것으로, 성화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없음을 워필드는 지적하고 있다. 보드만과 함께 Higher life 성화론을 이끌었던 피어설 스미스는 성화를 ‘정화’의 개념이 아니라 ‘발달’의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고 워필드는 개탄한다.³⁵ 워필드는 성화를 신자 자신의 단순한 행동만의 변화가 아니라 신자 자신의 변화를 함께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성화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그 성질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³⁶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적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Higher Life 성화 교리는 근본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성화의 전 과정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교리라고 워필드는 지적하고 있다.³⁷ 워필드는 Higher Life 성화 교리가 이러한 결실을 견게 된 가장 큰 근원적인 원인을 웨슬리안의 오류의 길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의지에 의해 이루지는 결정적(즉각적) 행위 성화론

³⁴ Benjamin B. Warfield, *Faith and Life*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0), 116, 195, 230, 422.

³⁵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76.

³⁶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93.

³⁷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77.

워필드는 성화에 대해 세 가지의 큰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성화는 중생할 때, 성령이 일으킨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이며, 두 번째, 성화는 신자의 생애를 통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며, 마지막으로 성화는 종말에 이르러 그 완성이 진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때 성화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통하여 일어나며,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가미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결정권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중생한 마음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칼빈은 신학적인 여러 논쟁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를 얻어진다는 것과 성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독점적으로 얻어지는 것을 말한다.³⁸ 여기에 대해 퍼거슨(Sinclair B. Ferguson, 1948-)은 성화를 ‘변화’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이것은 ‘자기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의 예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로마서 8:3~4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바울의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⁹ 그러나 리츨(Albrecht Ritschl, 1822-1889)은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배제시키면서 거룩과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출로 속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리츨은 종교를 의지에 결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의지를 앞세우는 Higher life 성화론을 워필드는 Ritschlianism의 가치가 나타나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⁰

38 Smith, *B. B. Warfield's Scientifically Constructive Theological Scholarship*, 139, 205: Warfield는 성화에 대해 분명한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점진성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영광에 이를 때에 그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 성화의 현재적 완성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 더욱 풍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Garcia, *Life in Christ*, 237-40, 245-52.

39 Ferguson, *Devoted to God: Blueprints for Sanctification*, 31-35.

40 Warfield, *Perfectionism*, 195, 404-05; Smith, *B. B. Warfield's Scientifically Constructive Theological Scholarship*, 62: Warfield의 분석에 의하면, 오벌린 신학의 완전주의와 Ritschlianism은 19세기와 20세기 초, 서로 얽혀 있었다: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III, 45-46: 리츨은 각각의 행위는 그 의지에 작용을 하며, 본성과 성격의 부여뿐만 아니라 의지 안에서 이기적인 성향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워필드는 ‘결정적 성화’와 ‘완전한 성화’를 개진한 적이 없다. 다만 워필드가 ‘결정적 성화’의 개념을 비친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과 정결하게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⁴¹ 존 머레이(John Murray, 1898-1975)는 결정적 성화의 교리에 대해 설명할 때, 칭의와 성화는 동시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즉각적인 것을 말하며, 칭의와 점진적 성화는 비 동시성의 관계에 있음을 밝히게 된다. 머레이는 칭의의 근거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칭의는 거룩한 생명의 근거인 유일하고도 적절한 관계를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성화의 토대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⁴² Higher life 성화론의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는 보드만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모든 의식적인 죄로부터 즉각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 안에 있는 절대적인 확신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다.⁴³ 그러나 보드만의 이러한 주장은 성화에 있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피력하고 있다. 하나는 예수를 완전하게 신뢰함으로써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 일어나는 결정적 성화이다.⁴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결정적 성화에 있어서 그 결과를 담아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적 결정에 따르는 것이었다. 그 사람의 의지적 결정은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성화에 대해 스미스와 조화를 이루었던 마한 또한 완전 성화를 통해 결정적 성화를 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화를 그리스도인의 간단한 믿음의 행동으로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사건으로 여기고 있었다.⁴⁵ 그러나 ‘거룩하게 하다’라는

41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89-90.

42 존 머레이, 『조직신학』,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8), 290.

43 Warfield, *Perfectionism*, 237: 워필드는 보드만의 주장과는 달리,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성결이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89.

44 Warfield, *Perfectionism*, 239.

45 Warfield, *Perfectionism*, 267.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를 말하고 있다. 즉, 세속적인 사물이나 사람으로부터의 구별을 말한다. 그렇게 볼 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자신의 의지의 결단으로 성화를 일으켜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설령 이것을 은혜로 적용을 시킨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지 또한 결국은 은혜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화는 우리의 책임 있는 참여를 포함은 하되 우리의 본성 전체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을 말한다. 여기에 대해 워필드 뿐만 아니라 후크마 또한 동의하고 있다.⁴⁶

보드만과 스미스는 우리가 거룩함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받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며, 우리를 모든 행위에서 거룩하게 지켜주는 것을 말한다.⁴⁷ 그러나 그 주장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자적인 행위에 의해 추구되어지고, 획득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워필드는 그들의 주장들에 대해 논평하기를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성화작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라고 비판한다. 그리스도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화의 모든 결과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책임져주시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Higher life 성화론은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워필드에 따르면 스미스는 그리스도가 책임져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조건이 되며, 동시에 사람의 책임론을 말한다. 워필드의 지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스미스를 비롯한 Higher life 성화론은 그리스도의 의지에 의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⁴⁸ 그들은 우리 자신의 의지적 결정에 따른 즉각적이며, 결정적 성화를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Higher life 성화론의 가르침은 회개나 거룩을

46 Hoekema, *Saved by Grace*, 192-93.

47 Warfield, *Perfectionism*, 275.

48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78.

향한 신앙의 열망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기보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끌어간다. 워필드는 이러한 이들의 가르침을 펠라기우스의 가르침보다 더 못한 가르침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 가르침에는 ‘케직 운동’의 경박함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Higher life 성화론은 자기 확신으로 얻어지는 결과를 말하고 있다.⁴⁹ 워필드는 Higher life가 가르치는 ‘행위 성화론’으로는 우리의 내적 부패를 씻거나, 그 내적 부패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 한다.⁵⁰

(3) 주관적이며 피동적(被動的)인 성화론

스미스는 행위에 의한 자신의 완전주의 교리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 죄에 대해 오염이 근절되었다는 것과 우리가 죄로부터 전적으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 새로운 본성이 옛 본성을 압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⁵¹ 그러면서 참 종교는 주관적 의지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 덧붙여 스미스 여사는 성화의 역사를 인간의 부분과 하나님의 부분으로 나누어 가르친다. 워필드에 따르면, 스미스 여사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협력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스스로 위치시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Higher life 성화론은 우리가 자신을 배치하는 주관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속된 말로 우리가 본성의 회복을 위해 그분께 주관적으로 헌신된 일을 착수하여야만 한다.⁵² 성화에 따른 우리의 행위가 주관적으로 정당히 행해진 후에 하나님은 그 역할을 피동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그 효과는

49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81-82.

50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91.

51 Warfield, *Perfectionism*, 275-77.

52 Warfield, *Perfectionism*, 286, 291-92.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워필드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 칼빈은 분명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도, 구원의 서정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도, 땅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치 제3자의 입장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⁵³

Higher life 성화론은 인간 측면에서의 주관적 의지의 발동만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측면에서의 피동적인 모습이 함께 가미가 되어졌을 때, 성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문밖에서 서서 기다리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으며, 인간은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는 결정권자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 Higher life 성화론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은 인간 측면에서의 주관적인 자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피동적인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성화는 죄와의 싸움 그리고 남아 있는 마음의 부패와의 싸움 및 신앙의 진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지기에 죄의 근절을 위해 신자의 부단한 투쟁이 평생 있어야 한다는 것을 워필드는 로마서 7장을 통해 밝힌다.⁵⁴ 여기서 그는 신자의 노력은 강조하되, 우리 자신이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워필드에 따르면 성화의 역사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한 나무로 만들어,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일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53 Calvin, *Inst.*, I.16.4, III.7.1;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III, 544-45: Bavinck는 구원이 인간 편에서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 그 은혜를 얻는 방식을 취할 때, 그 은혜를 인간편에서 믿음이라고 불릴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인간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며, 삶 전체를 통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구원의 과정임을 말하고 있다.

54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94.

워필드는 주장한다. 워필드는 바울의 성화론을 세 가지의 명제로 묘사한다. 첫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은혜이며, 둘째, 은혜는 무한한 능력을 말하며, 셋째, 은혜의 역사는 점진적이며, 언제나 전투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⁵⁵ ‘은혜’를 통하여 워필드는 Higher life 성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화에 있어서 신자가 주관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피동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⁵⁶

(4) 회개가 없는 성화론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यो,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라고 말하고 있다. 문자적으로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죄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우리 안에 진리는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⁵⁷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빛 안에서 신성한 교제를 알게 되고, 내면에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 후, 내부의 오염으로부터 마음을 내적으로 되찾고, 영혼을 전진시킨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죄-참회-용서-그리고 영혼-깨끗케 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회개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죄 없는 상태로 되돌려질 것을 말하고 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주신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

⁵⁵ Warfield, *Perfectionism*, 495-96:

⁵⁶ Stivason, *From Inscrutability to Concurus: Benjamin B. Warfield's Theological Construction of Revelation Mode from 1880 to 1915*, 161: Warfield는 신성한 인간관계의 성화를 다룰 때에 신성을 제일위(으뜸)로 하여 시작한다.

⁵⁷ H. A. Boardman, *The "HIGHER LIFE" Doctrine of Sanctification*, 159-60.

다.⁵⁸ 따라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의 성취에 빠져 있는 완전주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펠라기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신 신학’에 기반을 둔 오벌린의 완전주의에 따르면 모든 면에 있어서 거룩함의 표준인 하나님의 객관적 법칙은 무효화되며, 도덕적 존재와 마찬가지로 많은 법칙이 거룩함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완전은 형이상학적으로 달성 가능하며, 실제로 달성되는 것을 말한다. 레오나드 우즈는 마한을 자신의 모범으로 삼으며, 완전한 거룩은 현재의 삶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으로 말한다.⁵⁹ 그리고 이러한 오벌린의 완전주의에 대해 워필드는 펠라기안적이며, 웨슬리안의 아이디어를 담아내고 있다고 비난한다. 사실 완전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보드만 또한 자신의 *The Higher Christian Life*를 통해 오벌린의 완전주의는 웨슬리안의 길과 동일하다고 고백한바 있다.⁶⁰ 바빙크의 견해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웨슬리는 성화를 미래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는 행위를 통해 지금 그리고 즉각적으로, 완전히 주어지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⁶¹ 워필드는 웨슬리를 담아내고 있는 마한의 견해와는 달리,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거나,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 자신을 성화시키지 못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워필드에 따르면 중생하지 않은 죄인은 편향된 영향으로 인해 완전함이 아니라 항상 불완전한 과정 속에 놓여지게 된다.⁶²

58 H. A. Boardman, *The “HIGHER LIFE” Doctrine of Sanctification*, 160-66.

59 Warfield, *Perfectionism*, 68-72; Boardman, *The Higher Christian Life*, 66-67.

60 Boardman, *The Higher Christian Life*, 41: “And the Oberlinians took their terms, and some colors and shades of view from the Wesleyans. Both use the terms, “perfect love,” “Christian perfection” “entire sanctification” to describe the experience in question, and “doctrine of sanctification,” or “doctrine of holiness,” as expressive of their creed about it.”

61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III, 539-40.

62 Smith, *B. B. Warfield’s Scientifically Constructive Theological Scholarship*,

오벌린의 완전주의는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의 성취를 위해 준비만 하셨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성취는 우리에게 남겨졌음을 말한다. 이때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가 원한다면 그 사람이 완벽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³ 피니는 여기에 대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것은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신비한 제안들을 통해 가능성의 이름을 말한다. 워필드에 따르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피니는 회개를 말하지 않고, 신앙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며,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 그는 죄를 개인적인 문제와 내면의 사람의 상태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필연성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⁶⁴ 피니는 아담의 후손에게 죄가 전가되는 것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법적인 선고로 보지 않고 있다. 그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져 있기에 모든 사람들은 유혹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죄의 가능성을 통해 죄를 지은 것만을 죄로 여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욕망이 선택하는 것과 이기심만이 죄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 성화'를 확증함으로써 그 죄를 끝내길 원한다면, '강력한 정욕'의 죄를 부인함으로써 그 시작을 이루어야한다는 것이 피니의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용도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회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만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한다.⁶⁵

워필드의 지적에 의하면, Higher Life 성화 교리를 주장하는 스미스는

216.

⁶³ Warfield, *Perfectionism*, 79.

⁶⁴ Warfield, *Perfectionism*, 126.

⁶⁵ Warfield, *Perfectionism*, 185-93.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를 말할 때, 보드만과 같이 회개가 담겨진 구원과 성화가 아니라 각각의 독자적인 신앙행위에 의해 추구되어지고, 획득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웨슬리안의 길을 따랐던 이들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라고 해석하면서 죄에서 깨끗케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에 의한 것임을 말한다. 웨슬리 또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잘못 읽어 이것을 과거시제로 보고 있었다고 워필드는 지적한다.⁶⁶ 웨슬리는 죄에 대해 두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 세워진 인간에 관한 죄의 개념이며, 또 다른 하나는 펠라기안적인 위치에서의 죄에 대한 해석이다. 웨슬리에 따르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부분인 도덕적 형상의 성질은 상실을 가져왔지만 ‘자연적 형상’은 훼손되기는 했으나 완전히 멸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궁극적인 운명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신인 협력설’을 통해 알미니안의 모습을 함께 담아내고 있었다.⁶⁷ 이와 같이 워필드의 지적처럼, Higher Life 성화 교리를 따랐던 사람들의 한결 같은 모습은 회개가 없는 성화를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3.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한 성화로 보지 않는다

워필드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나타나는 인격의 변화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로 간주하고 있다. 워필드에 따르면 중생, 성화 그리고 점진적 성화와 영화에 대한 것은 신약성경에서 그 근거가 발견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생과 성화에서 나타나는 인격의 변화는 회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어난다. 이때 회개는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편에서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⁶⁶ Warfield, *Perfectionism*, 274.

⁶⁷ 카스, 『존 웨슬리의 완전론』, 37-43.

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끄는 역사이다. 따라서 회개는 사람의 뜻과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워필드는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택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가 그 배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⁶⁸ 따라서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증보사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바빙크는 성화를 모든 종교생활과 도덕생활 그리고 시민생활과 사회생활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었으며, 구약시대에는 의식의 특성까지도 지니고 있었기에 성화는 다른 이방민족과의 특별한 구별점이 되기도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성화를 새 언약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장래의 사역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그의 영의 사역인 것을 통해, 성화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 가운데 놓여진 것임을 밝히고 있다.⁶⁹ 워필드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다룰 때, 구원이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이방 종교의 교리라는 논평을 내어놓는다.⁷⁰ 따라서 성화를 새 언약의 관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력적인 것을 통하여 완전 성화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Higher Life 성화의 교리가 펠라기우스주의적이며,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문제를 넘어, 이것은 기독교와 상관없는 이방 종교의 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워필드는 칭의가 성화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칭의를 성화 앞에 놓는 이유는 구원이 죄의 형벌에서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워필드는 성화를 낳지 않는 칭의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던 것이다.⁷¹ Higher Life 성화 교리의 주장자들이 말하는

68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53-54: "Warfield recognizes this personally transforming aspect of salvation as the fulfillment of God's new covenant promise (Jer. 31:33; 32:39; Ezek. 36:26; 37:14) in which he promises the powerful inner workings of his Spirit in giving new life (a "new heart") that manifests itself in inward and outward holiness."

69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IV, 232-36.

70 Warfield, *The Plan of Salvation*, 37.

71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55.

칭의와 또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화로는 죄의 본성을 근절하지 못한다. 그들은 죄의 본성에 대한 해결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통해 해결되어 지며, 우리는 이를 위해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치 개혁주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Higher Life 성화 교리가 개혁주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뿐이었다. Higher Life 성화론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측면에서의 성화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갈 성취를 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Higher Life 성화론을 가르치는 스미스 여사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고 워필드는 지적하고 있다.⁷²

워필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독특성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성령론의 근본적 일치에서 찾고 있었다.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구약 시대가 ‘준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신약 시대는 ‘심고’, 수확할 때까지 자라고 완성시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 또한 구약과 신약시대에 별도의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역을 이루어갔으며, 다만 구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이 구분되어지는 것은 그 사역이 준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한다.⁷³ 워필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성화에 따른 성령의 사역 또한 언약에 대한 신약과 구약의 개념 안에 있다. 성화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고 있는 퍼거슨에 따르면, 우리가 선택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하여 진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성화

72 Warfield, *Perfectionism*, 301: “The very spirit of the Higher Christian Life speaks here; and it teaches us that the sanctification received by faith does not eradicate the sinful nature: we retain the old nature of sin, apparently completely unaffected. All our sanctification is “in Christ,” external to our self, and is drawn upon only for our daily need “moment by moment,” that is to say, for our conduct solely, since it does not affect our nature. Despite these strong words, however, Mrs. Smith teaches that the heart itself is purified by Christ’s indwelling.”

73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339-41.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발의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⁷⁴ 그 또한 성화를 택자의 구원을 위한 새 언약의 성취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토대로 하고 있다.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주관적으로 효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의미한다. 언약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육신이 계획되어지며, 그 약속의 실행이 뒤따르게 된다. 그리고 구속자의 피가 요구되어지는 희생을 담아내고 있다.⁷⁵ 워필드는 이 언약의 피가 결국은 죄사함에 그 근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⁷⁶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모든 약속의 성취를 이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새 언약의 귀중한 약속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며, 사람의 의지의 결단이라는 결정력에 의해 완전주의 성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모순을 워필드는 자신의 *Perfectionism*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⁷⁷

워필드에 따르면, 오벌린의 완전주의를 담아내고 있는 마한은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갈 그리스도의 영의 일하심을 사람의 의지로 대신하고 있다. 그는 새 마음을 가질 것과 새로운 영을 만들어갈 것을 말하면서, 은혜를 우리의 의지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⁷⁸ 마한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통하여, 논증하는 방식의 원리를 성경에 둘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논증방식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경험 가운데서 얻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그에 따른 성령 세례에 관한 교리를 중심에 둔 가르침이다.⁷⁹ 자신의 주장과는 동떨어진 가르침을 주고 있다.

⁷⁴ Ferguson, *Devoted to God: Blueprints for Sanctification*, 14-19.

⁷⁵ Benjamin B. Warfield, *Biblical Doctrine* (Pennsylvania: Banner of Truth Trust, 2002), 376, 443.

⁷⁶ Benjamin Breckinridge Warfield, ed, Samuel G. Craig,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phillipsburg: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0), 32.

⁷⁷ Warfield, *Perfectionism*, 102.

⁷⁸ Warfield, *Perfectionism*, 103, 111.

⁷⁹ Warfield, *Perfectionism*, 64-67; Boardman, *The Higher Christian Life*, 69-70:

성경에 의하면, 언약의 신비는 성육신의 신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죄 사함과 거룩함을 이루어내기 위한 회개는 새 언약을 담아내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적 상태(natural state)’인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상태가 아니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피하는 자들의 모습은 불신자들이 행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거룩해지기 위해 죄악된 욕망을 억누르며, 본성적 상태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 의지적 발상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⁸⁰ 사람의 의지적 결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내는 새 언약은 워필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 언약의 성취인 구원을 말하고 있다.⁸¹ 그리고 성화는 이러한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주관적인 일하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IV. Higher life 성화론에 나타나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

1. 다른 두 성질의 요소로 보는 칭의와 성화의 구별

Higher life 성화론을 주장하는 보드만은 두 가지 개별의 경험에 의해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게 되며, 이것이 보드만의 관심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Higher life 성화론의 체계적 기초를 이루게 된다.⁸² 워필드를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의 신학은 칭의와 성화를 구별은 하지만 이것을 개별적인 또 다른 것의 구별이 아니라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구별로 보고 있다. 칼빈은 로마서 5장과 6장의 칭의와 성화에 대한 주석에서 “누구든지 증생하지

Boardman 또한 경험에 대한 것을 가르치며, 처음에는 경험이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경험을 얻는 순간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⁸⁰ 월터 마샬, 『성화의 신비』, 장호준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7), 105-07.

⁸¹ Benjamin B. Warfield, *The Saviour of the world*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1), 231-32.

⁸² Boardman, *The Higher Christian Life*, 35, 51-53.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근원으로부터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는 의를 입을 수 없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⁸³ 경건한 마음은 자신이 생명의 깨우침을 조명 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과 성화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게 된다.⁸⁴ 이런 칭의와 성화에 대해, 퍼거슨 또한 칭의와 성화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과 점점 더 의로워지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칭의는 성화를 의지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거슨은 성화의 시작 없이 결코 칭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⁸⁵ 서로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웨슬리안의 완전주의를 담아내고 있는 Higher life 성화론은 칭의와 성화를 연결시켜보지 않고, 믿음과 칭의, 믿음과 성화라는 두 단계의 분리를 통해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며, 성화는 믿는 순간 단번에 주어지는 것과 그 자체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Higher Life 성화 교리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은 죄악된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자 그리스도를 취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워필드에 따르면 Higher Life 성화 교리는 자신이 실제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Higher Life 성화론은 옛 사람의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겨둔 채 의식적인 죄의 극복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성화는 그 자체로 가치를 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⁸⁶ 여기에 대해 퍼거슨은 성화를 하나님께서 자기

⁸³ Garcia, *Life in Christ*, 96-97.

⁸⁴ Calvin, *Inst.*, I.13.13.

⁸⁵ Ferguson, *Devoted to God: Blueprints for Sanctification*, 9-10: “We are not justified on the basis of our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never takes place without sanctification beginning. As John Calvin so well put it, they belong together because Christ was given to us for both. To separate them would be ‘to rend Him asunder’.”

⁸⁶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74-76.

백성을 본성적으로 죄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와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⁸⁷ 워필드의 견해가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다.

Higher Life 성화 교리를 이끌어가는 보드만은 ‘완전 구원’, ‘완전 신뢰’를 말하며, 예수 안에서의 별개의 경험을 바탕으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여 말하게 된다.⁸⁸ 평생 웨이크 교도로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웨슬리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스미스 여사 또한 ‘칭의’와 ‘성화’를 두 가지의 별개의 경험으로 보는 감리교 형식을 따랐으며, 이것을 Higher Life movement의 전체 과정을 통해 가르쳤다.⁸⁹ 스미스 부부의 ‘고귀한 삶’에 대한 가르침은 성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와 분리된다는 뚜렷한 가르침이었다. 그들은 성화를 칭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성화는 칭의와 별개로 완전히 새롭게 획득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화는 칭의와 상관없이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행위에 의해 추구되어졌으며, 획득되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전한 복음을 “신앙으로 성화”한다라고 선언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들은 특정한 목적을 향한 특별한 신앙의 행사로 즉각적인 성화를 말하였으며, 경험에서만 구원의 완성을 말하므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미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던 것이다.⁹⁰ 워필드는 로마서 6장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 칭의가 죄와의 단절을 말하고 있다면, 성화 또한 죄와의 결정적 단절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그 본질을

87 Ferguson, *Devoted to God: Blueprints for Sanctification*, 11-13.

88 Warfield, *Perfectionism*, 229: “This separation of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as two distinct “experiences” resting on two distinct acts of faith is in point of fact Mr. Boardman’s primary interest, and constitutes the foundation stone of his system.”

89 Warfield, *Perfectionism*, 250-55;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IV, 245-51: 웨슬리는 성화를 칭의로부터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여기에 대해 Bavinck는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 안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뗄 수 없는 연관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한다.

90 Warfield, *Perfectionism*, 264-66.

형성하고 있다고 워필드는 주장한다.⁹¹

2. 의의 전가 거부에 따른 칭의와 성화의 구별

Higher Life 성화론이 칭의와 성화를 별도로 구분하여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로는 자신의 거룩함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성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득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었다. 원죄의 전가를 거부하는 피니의 생각은 그 전가의 거부가 원죄에만 그치지 않았다. 피니의 전가의 거부는 구원 서정의 전반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행동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 Higher Life 성화론의 골격이었던 것이다.⁹² 여기에 대해 마한 또한 견해를 함께 하고 있었다. 펠라기안의 견해에 갇힌 Higher Life 성화론은 그리스도인의 낮은 삶의 자세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칭의와 성화가 각각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의의 전가를 거부하고 있는 마한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자들의 신앙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칼빈은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셔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칭의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⁹³ 그러나 피니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여부가 그 사람에 대한 결정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⁹⁴ 워필드에 따르면 펠라기안의 ‘신 신학’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피니는 자신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완전’이라

⁹¹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491; Garcia, *Life in Christ*, 132.

⁹² Warfield, *Perfectionism*, 207: “But, having rejected these doctrines, its adherents, says he, have unfortunately lost sight of Christ as our sanctification also. They accordingly “have fallen into a self-righteous view of sanctification, and have held that sanctification is effected by works, or by forming holy habits.””

⁹³ Calvin, *Inst.*, III.11.2.

⁹⁴ Warfield, *Perfectionism*, 62-63.

는 흑암 속에 갇혀진 자였다.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성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1556년에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 칼빈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칭의와 성화의 동시성에 관한 기록을 순서대로 첨가한다. 그리고 8장 4절에 대한 언급에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 되는 것을 묘사하며, 율법에 의한 요구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⁹⁵

펠라기안의 교리 위에 세워져 있는 Higher Life 성화론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는 체계에 따른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워필드의 주장이다. 피니는 거듭남을 성령의 역사로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모든 것에 의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각 개별자들인 그 신자의 결정권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페어차일드에 의하면, 죄인은 자신의 죄 안에서 의의 결핍이 있다는 것이며, 선한 사람은 그의 순종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피니는 말하고 있다.⁹⁶ 워필드의 지적처럼, 의의 전가가 거부되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오벌린 완전주의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현저히 드러나고 있었다. 우리가 의인인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각 개별자인 신자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결론으로 보고 있었으며, 모든 것을 각 개별자인 신자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Higher Life 성화론은 피니의 주장처럼 의지의 자유는 의지의 능력을 의미하며, 자유의지를 확보했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워필드는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께서 그 길을 제시하지 않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⁹⁷ Higher Life가 말하는 칭의와 성화 그리고 구원에 따른 문제를 거부하고 있다.

⁹⁵ Garcia, *Life in Christ*, 135, 161.

⁹⁶ Warfield, *Perfectionism*, 138.

⁹⁷ Warfield, *Perfectionism*, 175.

V. 마치면서

워필드는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에서 “구세주보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더 소중한 그리스도의 칭호는 없습니다.”⁹⁸라고 말하면서 구세주라는 명칭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값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으려는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감사하는 고백의 신앙을 담아내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말하고 있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Higher Life 성화론’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하나는 인간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팔호 밖으로 내어버리고 있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망각해버리도록 만들고 있었다.

워필드는 ‘Higher Life 성화론’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의 형틀이 웨슬리안의 완전주의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분명하였고, 단호하였다. 웨슬리안의 완전주의는 개혁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포장되어진 펠라기우스였으며, 아르미니우스(Arminius, 1560-1609)였다. 웨슬리는 완전을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그 가능성을 말한다.⁹⁹ 웨슬리는 점진적 및 순간적 성화의 양면을 말하며, 완전성화를 가르친다. 여기에 대해 ‘Higher Life 성화론’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정적, 완전성화를 주장하며, 생애를 통해 완전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리로 삼고, 가르친다. 워필드는 ‘모든 사람이 성화의 완전에도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과 그리고 ‘완전에도 도달한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웨슬리의 완전성화에 뿌리를 두고

⁹⁸ Warfield,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325.

⁹⁹ 카스, 『존 웨슬리의 완전론』, 109.

있는 ‘Higher Life 성화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 칼빈은 우리의 거룩은 점진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완성은 현재의 삶을 통해 서가 아니라 성화가 완료될 때, 즉 은혜가 영광스럽게 될 때, 실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¹⁰⁰ 칼빈과 워필드를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은 완전한 성결을 죽음에 처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일순간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웨슬리는 빌립보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 전, 현재의 생애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⁰¹ 그러나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온전히 이룬’으로 번역된 *τέλειοι* 는 그 원형이 *τέλειος*로서 ‘완벽한’, ‘성숙한’이라는 뜻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신앙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위해 부단히 정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웨슬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Higher Life 성화론’은 성경의 근원을 벗어난 자유주의의 근원을 이루고 있었다. ‘Higher Life 성화론’은 워필드의 지적처럼, 사람의 의지적 판단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피동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었다.

¹⁰⁰ Calvin, *Inst*, IV.8.12; Garcia, *Life in Christ*, 112-13.

¹⁰¹ Smith, *B. B. Warfield's Scientifically Constructive Theological Scholarship*, 217; 각스, 『존 웨슬리의 완전론』, 157; 베르나르 코트레, 『루터·칼뱅·웨슬리』, 471; 편찬위원회,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122): 빌립보서·골로새서』 (서울: 제자원, 2006), 245; 웨슬리는 완전이 존재한다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 있지만 성경에서 정작 말하는 것은 웨슬리가 말하고자 하는 완전한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말하고 있다.

[Abstract]**Warfield's Criticism of "The Higher life" sanctification doctrine**

Youn Ho Jo (Grisim Ghurch)

B.B. Warfield(Benjamin Breckinridge Warfield) was a descendant of the Puritans. He grew up in a family who inherited the Reformed faith, and this process of growth has a great influence on his theology. Warfield, Old Princeton seminary professor, was a biblical, theologian who pursued supernaturalism. Therefore, the sanctification doctrine of "The Higher life", which was based on John Wesley's theology of Pelagianism and Arminianism, was the subject of Warfield's criticism. Warfield concedes that the sanctification doctrine of "The Higher life", which is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following Wesley's teachings, is a doctrine of seeking the ideas of the Gentiles. Asa Mahan and Mr. and Mrs. Pearsall Smith and William Edwin Boardman, who led the 'Oberlin Perfectionism' with Charles G Finney, "The Higher life" sanctification doctrine was dominated by the will of man, and God was shown to be passive in this regard.

As indicated by Warfield's point of view, 'The Higher life movement', 'The Victorious Life Movement' and 'Keswick Movement' derive their doctrine from perfectionism and its roots become one with Wesley. The doctrines of perfectionism

regarded sanctification as being attainable at present, and argued that it was done by the determination power of man's will. Warfield points out that this perfectionism is driving Christianity to a state of peril. Warfield sees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in the point of the new covenant, the Mediator work of Christ for the chosen people of God. but, “the Higher life” doctrine of sanctification speaks of accomplishment through our will.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Warfield, the sanctification doctrine of “The Higher life” sees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as distinctions to different qualities, not distinctions from connected ones. Even the doctrine of “The Higher life” denies ‘Adam's sin’ and ‘the imputation of righteousness’, and says it is justified by each individual's faith.

Warfield sharply analyzes how the sanctification doctrine of “The Higher life” is not recognized by reformism. A representative book on this is Warfield's Perfectionism. Through this book, Warfield reveals that his own sanctification is in a reformist perspective through analysis of the “Higher life” sanctification doctrine. And we can see through this article his passion to preserve the doctrines of Reformedism that are shaken by liberal theology. And “The Higher life” sanctification doctrine, which is summarized in terms of perfectionism, has enjoyed the effects of popular agitation, but Warfield teaches us that it is not a doctrine that leads us to the path of eternal life.

Key Words: Warfield, Perfection, Sanctification, Will, Oberlin, The Higher life

[참고문헌]

- Boardman, Henry A. *The "HIGHER LIFE" Doctrine of Sanctification*.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77.
- Boardman, William Edwin. *The Higher Christian Life*. Massachusetts: Henry Hoyt, 1858.
-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Vol. 1.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 _____. *Reformed Dogmatics* Vol. III.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 _____. *Reformed Dogmatics* Vol. IV.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Ferguson, Sinclair B. *Devoted to God: Blueprints for Sanctification*. USA: The Banner of Truth Trust, 2016.
- Garcia, Mark A. *Life in Christ*. USA: Nottingham AlphaGraphics, 2008.
- Hoekema, Anthony A. *Saved by Grace*.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 Smith, David P. *B. B. Warfield's Scientifically Constructive Theological Scholarship*. USA: Pickwick Publications, 2011.
- Stivason, Jeffrey A. *From Inscrutability to Concursus: Benjamin B. Warfield's Theological Construction of Revelation Mode from 1880 to 1915*. USA: P&R Publishing Company, 2017.
- Warfield, Benjamin Breckinridge. *Perfectionism*.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8.
- _____. *Faith and Life*.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0.
- _____. *Biblical Doctrine*.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2.

- _____. *The Saviour of the world*.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1.
- _____. *The Plan of Salvation*.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915.
- _____. ed. Samuel G. Craig.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phillipsburg*: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0.
- Zaspel, Fred G.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Illinois: Crossway, 2010.
- _____. *Warfield on the Christian Life: Living in Light of the Gospel*. Illinois: Crossway, 2012.
- 린드버그, 카터 편집. 『경건주의 신학과 신학자들』. 이은재 역. 서울: 사)기독교 문서선교회, 2009.
- 머레이, 존. 『조직신학』.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8.
- 마샬, 윌터. 『성화의 신비』. 장호준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7.
- 워필드, 벤자민 B. 『칼뱅』. 이경직.김상엽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각스, 레오 조지. 『존 웨슬리의 완전론』. 김덕순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89.
- 크랙, 제럴드 · 비들러, 알렉. 『근현대교회사』. 송인설 역. 경기도: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 클락, 켈러 제임스의 3인. 『신학 공부를 위해 필요한 101가지 철학 개념』. 김지호 역. 서울: 도서출판 100, 2017.
- 코트레, 베르나르. 『루터.칼뱅.웨슬리』. 박건택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4.
- 퍼거슨, 싱클레어 외 4인. 『성화란 무엇인가』. 이미선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 헤그룬트, 벵크. 『신학사』. 박희석 역. 서울: 성광문화사, 2014.
- 편찬위원회.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122): 빌립보서.골로새서』. 서울: 제자원, 2006.